

짧고 간결한, 그러나 감동 큰 우화형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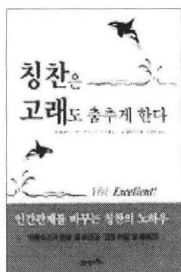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선택》

《핑》《배려》《선물》

《마시멜로 이야기》《폰더씨의 위대한 하루》

존음을 다투며 살아간다는 요즘 사람들에게 “짧고 간결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이야기”로 사랑받는 우화형 자기계발서. 2000년 이후 출간돼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우화형 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켈 블랜차드 지음 | 조천제 옮김 | 21세기 북스 | 220쪽 | 값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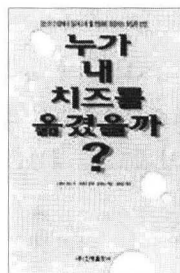


2003년 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단숨에 올라 왔던 우화형 자기계발서. 웨스 킹슬리라는 주인공이 출장중에 우연히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게 되면서 3톤이 넘는 범고래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돌고래에게 멋진 쇼를 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과 칭찬 그리고 격려라고 말하면서 ‘고래반응’이란 용어를 자세히 설명하고 가정에서 사랑받고 직장에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사보게 된 이유를 제목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원제가 《Whale Done!》인 이 책은 처음 《YOU Excellent!: 칭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이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로 제목을 바꿔 출간한 이후 독자반응을 톡톡히 얻으면서 출판가에 ‘제목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지음 | 이영진 옮김 | 진명출판사 | 124쪽 |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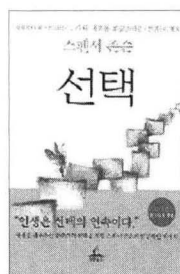
2000년도 이후 출간된 우화형 자기계발서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책. 스니프와 스킨이라는 작은 생쥐와 우리 모습을 상징한 꼬마 인간이 등장하는 이야기다. 어렵게 구한 치즈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후 이 상황을 불평하는 이, 그리고 이 상황을 잘 분석해 또 다른 치즈를 찾아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이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벽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변화에 당당히 맞서보는 태도를 가져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준다. 저자가 만들어둔 치즈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고자 하는 직업,

인간관계, 재물, 근사한 집, 자유, 건강, 명예 등을 의미하는 상징적 개념. 한 블로거는 “뻔한 이야기가 아닐까 망설였는데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내 자신의 모습, 환경, 직장, 가정, 미래에 대해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선택》 스펜서 존슨 지음 | 형선호 옮김 | 청림출판 | 216쪽 | 값 9,800원



우화형 책의 스타 작가 스펜서 존슨의 저서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결정의 원칙을 알려주는 책. 한 젊은이가 주말 산행 중 ‘길잡이’란 인물과 대화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되는 사연을 담고 있다. 젊은이와 ‘길잡이’라는 인물의 산행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선택의 원칙’을 익히도록

유도한 이 책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새삼 알려준다.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신만의 굳은 의지와 원칙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나간다고 제안하면서 좋은 결정, 좋은 결과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핑》 스투어트 에이버리 골드 지음 | 유명만 옮김 | 웅진윙스 | 220쪽 | 값 9,800원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꿈을 안고 새로운 연못을 찾아 떠나는 개구리 '핑'의 이야기. 핑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고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개구리 핑과 스승 부엉이의 대화는 선문답 혹은 해학적인 말

주고받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자는 이들의 짝막한 대화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실제 삶과 사회에서의 비즈니스 과정 속에서 맞부딪치게 되는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게 했다. 한 독자는 "2006년부터는 사회 전반적으로 '실행'이라는 것이 키워드라고 하던데 그 키워드에 맞춰 나온 내용인 것 같다"며 직장인을 비롯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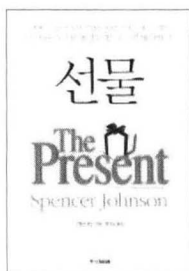
《배려》 한상복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60쪽 | 값 10,000원



회사에 수석 입사하여 고속 승진을 계속하고 성공궤도를 달렸던 주인공 '위'의 위기. '위'가 갑자기 정리대상으로 지목받는 프로젝트 1팀으로 발령을 받고 그런 그를 못 견뎌하던 아내까지 이혼을 요구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지 그 과정을 좇고 있다. 저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

이?", "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소리를 하던 위가 11층에서 만난 인도자가 알려준 키워드를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경쟁하는 삶이 아닌 함께 배려하는 삶, 공존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 나 혼자 아니라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왜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국내 저자의 책.

《선물》 스펜서 존슨 지음 | 형선호 옮김 | 중앙M&B | 136쪽 | 값 8,500원



"자, 지금부터 당신을 어느 소년의 이야기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는 흥미로운 속삭임으로 서두를 여는 스펜서 존슨의 책.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 나선' 소년이 술한 시행착오 끝에 그 선물을 발견하고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무기력한

소시민들에게 용기를 가져볼 것을 제안한다. 삶이 힘들어 올 때마다 비범하고 독특한 해법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 현대인 모두가 꿈꾸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들을 단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출간 즉시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권 안에 진입한 책으로도 유명하다.

《마시멜로 이야기》 호아킴 데 포사다 외 지음 | 정지영 옮김 | 한국경제신문사 | 174쪽 | 값 9,000원



2006년 초, 출판가의 베스트셀러가 된 우화형 자기계발서.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마시멜로를 바로 먹지 않고 15분을 참아낸 아이와 그것을 바로 먹어버린 아이들이 10년 혹은 20년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통해 성공과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천하기 힘든

사실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이야기. 저자는 눈앞에서 나를 유혹하는 마시멜로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다면 얼마 후에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당장의 만족을 유예하는 사람에게 더 큰 만족감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상하게 일러준다. 인기 아나운서 정지영 씨가 번역을 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은 책이다.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앤디 앤드류스 지음 | 이종이 옮김 | 세종서적 | 270쪽 | 값 9,500원



'데이비드 폰더'라는 한 중년 가장이 만 하루 동안 겪은 환상여행을 소설 같은 감동적인 필치로 그려낸 책. 연이은 실직, 쌓인 빚, 딸의 대수술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40대 가장 폰더 씨는 우연한 사고를 통해 역사 속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가 여행에서 7명의 역사적 인물들-트루먼 대통령, 안네 프랑크, 체임벌린

대령, 콜럼버스 등을 차례로 만나면서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소중한 메시지 7가지를 선물로 받고 환상에서 깨어난다는 스토리다. 단순한 플롯, 긴박하게 전개되는 이야기지만 역사적 인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했고 감동적인 장치들을 적절히 잘 배치해서 우화를 뛰어넘는 소설적 감동을 이끌어낸다는 호평을 받았다. 공병호씨는 "때론 삶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지혜와 감동을 전하는 책"으로 추천한 바 있다. ★★★★★